

PB-51

중부지역 적응 내병 다수성 건식 쌀가루 전용 우량계통 ‘수원620호’안억근^{1*}, 원용재¹, 정응기¹, 박향미¹, 정국현¹, 현웅조¹, 성낙식¹, 김병주¹¹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중부작물과**[서론]**

최근 쌀가루 산업활성화 및 쌀 생산조정 효과를 얻기 위해 건식 쌀가루 전용 품종인 ‘한가루’, ‘미시루’, ‘수원542호’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습식제분(600원/kg)보다 건식제분(300~400원)을 통한 제분비용을 낮추기는 했으나 밀가루 제분비용(300)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다. 이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용품종의 수량증대를 통한 원료곡의 단가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자포니카 다수성 품종인 ‘보람찬’을 육성재료로 이용하여 기존 품종보다 수량 및 내병성이 향상된 계통인 ‘수원620호’를 육성하였다.

[재료 및 방법]

건식 쌀가루 제분 적성이 있는 연질미 ‘수원539호’를 모본으로 다수성이며 내병성을 가진 ‘보람찬’을 부분으로 인공교배 한 후 계통선발, 생산력검정시험 등을 수행하여 다수성이며 내병성을 보유하고 초형이 우수한 우량계통인 ‘수원620호’를 선발하였다. 또한 초다수 내병성 및 분질 특성을 보유한 품종을 조기 육성하기 위해 ‘수원613호’, ‘전주614호’, ‘드래찬’ 등과 인공교배 후 약배양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내병성 및 수량성이 향상된 건식 쌀가루 전용품종을 육성하고자 자포니카 초다수성 품종인 ‘보람찬’을 재료로 계통육종법 및 특성검정을 통하여 ‘수원620호’를 육성하였다. ‘수원620호’는 출수기가 8월 13일로 중부지방에 잘 적응하는 중생종이며 백미 수량이 630kg/10a로 ‘한가루’(542), ‘미시루’(566), ‘수원542호’(534)보다 각각 16%, 11%, 12% 증수되었다. 단백질 및 아밀로스 함량은 각각 5.2%, 20.1%였고 현미천립중은 24.8g으로 ‘한가루’(32.9), ‘미시루’(30.8)보다 가벼웠고 연질미인 ‘설갱’(22.1)보다 다소 무거웠다. 이 계통은 또한 흰잎마름병(K1, K2, K3) 등에 강하고 백미는 구수한 향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재배안정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원료곡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제과 제빵 시 풍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밀가루와 유사한 분말 특성인 분질미 계통, 초다수 내병성 연질미 계통을 조기 육성하기 위해 최고품질 벼인 ‘청품’과 분질미인 ‘전주614호’를 교배한 계통, 내병성 연질미인 ‘수원613호’와 자포니카 초다수 품종인 ‘드래찬’ 등과 교배한 F₁ 계통의 약배양을 수행하고 있다. 차후 초다수 내병성 강화분질미 개발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식 쌀가루 확대보급을 통하여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밥쌀용 쌀 생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289001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695-4027, E-mail. okahn@korea.kr